

고 오진곤 전 회장에 대한 추억

박성래^{†1}

오진곤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66년 무렵이었다. 전상운 교수의 $\square$ 한국과학기술사 $\square$ 가 처음 나온 때쯤이었기 때문이다.²⁾ 이 책은 1966년 3월 25일 700부 한정판으로 초판이 출간되었다고 책에 쓰여 있고, 나는 $\square$ 중앙일보 $\square$ 의 과학 담당 기자로서 그 출판 기념회(중구 다동 “호수 그릴”)에 갔었다. 그 때 쯤 오 교수는 내가 일하던 $\square$ 중앙일보 $\square$ 를 찾아왔고, 자기가 쓴 책이라며 크지 않은 책 하나를 건네주고 갔다. 그가 그 날 주었던 책의 제목 등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으나, 그 사실만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모양이다.

신기한 것은 그 즈음 나는 이미 전 교수를 알고 있었고, 송상용 교수도 만났을 법 하건만, 그들에 대한 구체적 기억은 없다. 아마 내가 과학사에 관심을 갖기 전이었기 때문일 듯도 하다. 어쨌거나 내 기억으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오 교수와 대면했다는 점이 기특하다.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평생 나와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셈이다.

내가 오 교수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다음 부터였다. 한국 과학사 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눈에 띈다. “77년은 특별한 해였다. 미국에서 한국 과학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성래와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영식, 그리고 송상용이 각각 외국어대 · 서울대 · 성균관대의 전임이 되었다. 이제 과학사 전임 교수를 가진 대학은 성신여대(전상운), 전북대(오진곤)을 합쳐 다섯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이쯤부터 우리들은 서로 의지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벌여 갔다. 80년대에는 “한 · 일 과학사 세미나” 로 오 교수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1986년 서울에서 제3차 세미나를 열었던 때에는 내가 교무처장을 맡고 있던 한국 외국어

¹†한국 외국어대학교 명예 교수.

²) 전상운, $\square$ 한국과학기술사 $\square$ (과학 세계사, 1966).

대학교에서 기숙사까지 동원해 일본 손님들을 모셨고, 오 교수는 전주를 방문한 이들 일본 과학사 학자들과 우리 일행을 성심껏 대접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어느 요릿집에서 오 교수의 장기랄 수 있는 기타 치는 시늉과 함께 노래하던 그의 모습이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다.

또 1998년 10월 말 과학사 학회는 전북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 해는 내가 3년 임기의 회장에서 물러나는 때였다. 원래 우리 학회장은 2년마다 바뀌는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한 해 더 장기 집권(?)을 한 경우였다. 하여간 그 날은 오진곤(1993-1995)에 이어 내가 맡았던 회장 자리를 김영식 교수가 계승한 날이 되었다. 가끔 그랬던 것처럼 송 교수와 나는 부부 동반이었는데, 오 교수 부인이 직접 차를 몰아 두 여성들과 금산사 관광을 다녀온 후 저녁을 함께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유명한 전주 콩나물 국밥을 모조 한 잔과 함께 하고 헤어졌다. 오 교수를 회상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부부는 엇그제 동네의 전주 콩나물 국밥 집을 찾아가 점심을 했다.

2000년 11월 초에는 오 교수가 내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은 일도 있다. 과학사 학회 가을 모임을 마치고 뒤풀이가 끝났을 때 오 교수가 피곤해 보여서 내가 제안했더니 선선히 따라와 주었던 경우였다. 전철로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밤을 묵은 그는 다음날 전주로 돌아갔는데, 뒷날 몇 차례나 내 아내가 아침에 무슨 해장국을 해주더라 말을 거듭했다. 나름 고맙게 생각했던 듯하고, 우리 부부 역시 그런 일이라곤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 그와 함께했던 기억을 오래 떠올리곤 했다. 우리 학회 모임은 대개 서울 명동의 중국집에서 했는데, 끝난 후 우리는 흔히 같은 전철로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두어 차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함께 내려 그가 전주행 야간 버스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발을 돌려 집으로 간 적도 있다. 나는 어차피 그 터미널을 지나 집으로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70쯤 부터는 술에 취하면 조금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으로도 기억한다. 2005년 말 제주대 서귀포 연수원에서 가졌던 학회에서는 오 교수가 실족하여 부상하고 배탈이 나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그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과학사 책을 펴낸 것으로도 기억할 만하다. 서양 과학사를 정리해 대중에게 소개하는 모양새로 책을 냈고, 2001년 4월 21일에는 오 교수가 과학 진흥상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표창이라 하겠다. 하필 그날 나는 전북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전주에, 그리고 오 교수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오진곤 교수의 뒷심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은 1995년 그가 한국에서 유일한 과학사 전공 학과를 대학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전북대 과학학과는 결국 내가 머뭇거리며 도와준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과정에서 나와 함께 공부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학문으로의 길을 열어준 고마운 일이었다. 당시에 나는

우리 학교에 그런 학과를 만들 엄두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추진력이 부러웠던 기억이다.

그는 아주 가끔 전화를 걸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마지막 전화를 받은 것은 2015년 9월이었다. 그의 팔순 잔치에 대해 물었더니 이미 해버렸다고 말했다. 꼭 1년 전 전화에서 오 교수는 자신의 팔순 모임에서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부친이 다닌 서울의 학교가 경성 사범인지 한성 사범인지 내게 질문을 했다. 자기가 전주 사범을 나왔고, 부친이 서울의 사범 학교를 나와 일가에 7명이 사범 출신이고, 여럿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경성 사범 학교가 맞을 거라고 답해준 일이 있다. 오 교수는 교수로서의 일생을 크게 자랑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때쯤 또 다른 전화가 전주에서 왔다. 한국 과학 문명학 연구소를 전북대로 옮기면서 12월 14일 개소식을 겸하여 국제 회의를 하는데, 날더러 한국의 과학사에 대해 한 자락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 교수가 한 번 놀러 오라고 했던 뒤끝이어서 가고 싶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다며 사양했다. 내 여행이 12월 초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마주칠 기회도, 통화할 일도 없는 세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저 세상에도 콩나물 국밥은 있겠지... 되뇌이며, 그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